

【독일어권 국가의 역사】

합스부르크가의 독일제국 지배와 독·독 대결*

— 1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비인 회의까지 —

임종대 (서울대)

1. 머리말을 대신하여

오스트리아사와 독일사는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어서 두 나라의 역사를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역사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기가 쉽다. 그럴 것이 1871년 독일통일 이전까지의 역사는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역사라기보다 <두(兩) 독일 강국> 즉,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두 축으로 한 독일어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1440년 이후 366년 동안의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선출되었으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독일제국의 황제이었기 때문이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겸 독일제국 황제로 선출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은 동시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가원수라는 1인 3역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는 분리하여 기술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기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두 독일 즉,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갈등이 표면화 한 것은 1701년 프로이센이 공국(公國)에서 왕국으로¹⁾ 승격하면서부터이었다. 독일어권의 패권 장악을 둘러싼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쓰여졌음.

1) 오스트리아 황제 겸 독일황제 레오폴트 1세는 <스페인 계승전> 당시 오스트리아를 위해 지원군을 파견한 브랜덴부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에게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독일제국에 소속되지 않은 프로이센의 영토에 대해서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

두 독일의 갈등은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면전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래서 본 논문은 <두 독일>의 갈등이 첨예화하기 시작한 <제1차 슐레지엔 전쟁>에서부터 1866년의 <독·독 전쟁>에 이르기까지 <두 독일>의 갈등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II. 마리아 테레지아와 요제프 2세 시대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는 1740년에 즉위하여 1780년까지 40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치했다. 여자였기 때문에 선제후들이 선출하는 독일황제 즉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대신 남편 프란츠 슈테판이 프란츠 1세로서 명목상 독일황제의 자리를 지켰다. 프란츠 1세는 그러나 1765년 타계하고 장남 요제프 2세가 1765년 독일황제로 선출된다. 그러니까 요제프 2세는 대외적으로는 독일황제 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스트리아 제국을 모친과 함께 공동 통치한 셈이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1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중 6명은 테레지아 생전에 사망하였다. 후일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결혼했다가 단두대에서 희생된 마리 앙투아네트도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란츠 1세 황제의 딸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결단력과 여성성을 겸비하였으며 의무이행과 성실성과 도덕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라인강 좌안(左岸)의 로트링겐가 출신의 남편과 혼인을 맺었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통치자였다. 그녀는 즉위한 그 날부터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수레바퀴의 중심축이었던. 즉위한 이듬해 프리드리히 2세의 침공으로 시작된 슐레지엔 전쟁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었지만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가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와 프로이센의 국내왕(König in Preußen) 프리드리히 1세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다. 1772년 프리드리히 2세가 자신을 명실공히 프로이센의 왕(König von Preußen)으로 칭할 때까지 71년 동안 프로이센의 왕은 독일제국 밖에서 불린 칭호이었다.

가지고서 침략자에 맞서 그녀가 상속받은 합스부르크 다민족 제국의 유산을 지켜낸 여인이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부왕 카알 6세로부터 상속받은 오스트리아 다민족 제국은 공통의 언어도, 종교도,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춘 행정도 없는, 언어와 종교와 풍습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를 한데 합쳐 놓은 광활한 땅 덩어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하여 취한 첫 조처는 모든 법률과 법령들을 심의하고 단일화된 행정체제를 수립할 국가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家)에²⁾ 대한 확실치 않은 충성서약 대신 확고한 국가조직과 중앙행정 기구를 통한 제국의 지배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제반 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 병합된 국가들은 모두 총독령(總督領)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지방행정 관서를 두었다.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는 그러니까 귀족계급과 장원제도가 정부를 보호한 봉건통치 형식을 벗어나 근대 국가구조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였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하우크비츠 Friedrich Wilhelm Haugwitz(1702-1765) 백작을 주무장관으로 기용하여 행정개혁에 착수하여 그로 하여금 최고재판소를 두는 새로운 사법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모든 계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등한 형법을 제정케 하였다. 1776년에는 소송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적용되어 온 고문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행정과 재판권을 분리시킨 것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개혁의 결과이었다. 군제도 개혁하여 징병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귀족과 성직자와 관리와 부유층 시민들은 여전히 징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녀는 비너 노이슈타트 Wiener Neustadt에 장교양성을 위한 <테레지아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했고, 관리양성을 위하여 빈에 설립된 <테레지아 아카데미>는 귀족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을 전담토록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의 장자 요제프 2세가 공동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제1차 폴란드 분할은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1386-1572년까지 폴란드를 통치한 왕가인 야게로네 Jagellone가의 대가 끊긴

2)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로트링겐가의 프란츠 슈테판의 결합으로 오스트리아의 황실은 카알 6세가 순수 합스부르크의 혈통을 이은 마지막 독일 황제이었다.

후 1573년부터 1795년까지는 귀족들에 의해 선출된 왕이 세습왕을 대신하여 폴란드를 지배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선출왕은 실권이 없었고, 선출권을 가진 귀족들간의 알력과 귀족들의 민중에 대한 횡포가 극심하였었던 시기이었다. 특히 1704년과 1706년-1709년 그리고 1733년-1736년 사이에 왕을 세 차례 역임한 스타니스라우스 Stanislaus 1세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귀족 과벌간의 불화는 폴란드의 공공부문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764-1795년까지 통치한 폴란드의 마지막 선출왕 스타니스라우스 2세의 재임기간 동안에 국가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있었으나 때가 늦어 외세의 개입에 굴복하고 만다. 세 번에 걸친 폴란드의 분할은 모두 스타니스라우스 2세의 재위시절에 일어났다. 17세기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타종교 배척주의는 이웃의 강대국들이 폴란드의 영토를 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다. 1772년의 1차 분할 때 폴란드는 영토의 30%와 주민의 35%를 상실한다. 오스트리아는 동 갈리시아를 획득하지만 당시 오스트리아를 이들과 함께 지배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폴란드의 분할에 반대했으며 일생동안 폴란드의 분할을 막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요제프 2세의 영토확장 정책을 마리아 테레지아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³⁾ 오스트리아가 동 갈리시아를 제국의 영토에 편입한 이유는 오로지 러시아와 프로이센이라는 양대 열강을 견제하여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부연한다면 1792년과 1793년의 2차분할 때에는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참여하였고, 1794년 코스치우슈코 Tadeusz A. B. Kosciuszko(1746-1817)가⁴⁾ 일으킨 반란으로 폴란드는 주권을 빼앗길 빌미를 3강(프로이센·러시아·오스트리아)에게 제공하고 만다. 나폴레옹 침공시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은 —1794년 봉기에도 참여했었던 돔브로프스키 Jan Henryk Dabrowski(1755-1818) 장군은 애국 폴란드 의용병들을 이끌고 1807년 <바르샤우 대공국>을 건설한다. 그러

3) Siehe dazu Karl Vocelka: Geschichte Österreichs. Kultur - Gesellschaft - Politik. München 2002, S. 154.

4) 2차 폴란드 분할에 항거해 1794년에 봉기하지만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에 패배한다. 미국독립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그는 폴란드 독립운동의 전설적 인물로 추앙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1년 후인 1795년 3차 분할과 더불어 폴란드 왕국은 해체된다.

나 나폴레옹이 패하고 1815년 <빈 회의 Wiener Kongress>에서 바르샤우 대공국은 군합국(君合國)의 형태로 러시아에 편입되고 만다. <빈 회의>의 결과라 하여 <바르샤우 대공국>은 <콩그레스 폴란드 Kongress Poland>라는 별칭으로도 통한다. 폴란드의 주권상실 기간은 그러니까 1795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18년까지 계속된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주권상실 시기는 3강의 분할통치 기간과 일치한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40년 집권을 마감한 1780년에 사망한다. 마리아 테레시아의 집권시기에 완성되었으며 그녀가 즐겨 머물렀던 쾨브룬 Schönbrunn 궁전의 아름다운 내실과 정원은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남아있다. 여섯살의 모차르트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버지에 이끌려 여제에게 소개되고 어머니의 모습을 한 젊은 여제의 매력에 사로잡힌 듯한 어린 모차르트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그때 그 장소에 걸려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서거했을 때 그녀는 진실로 <국모 mater patriae>이었다. 오스트리아적 관습과 전통, 혹은 오스트리아적 삶의 현실에서 가장 <오스트리아적인 것>의 포괄적 표현형식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여인으로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정서 속에 남아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이다. 그녀가 얼마나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군주인가는, 그녀의 지시에 의해 쾨브룬 궁전을 위시한 모든 황실소유의 건물을 도장하게 한, 진흙에서 추출한 황색도료를 일반 국민들이 앞 다투어 모방했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황실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러한 도색방법을 생각해 냈고, 그녀를 숭앙한 귀족들과 국민들이 황실을 흉내 냈으니, 여황제는 근검절약의 생활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였고, 국민들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정신적 보상을 얻었을 것이다. 이 황색을 이름하여 <테레지아 노랑>이라 불렀다.

1765년 부친인 프란츠 1세가 서거하면서 신성로마제국 즉 독일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름과 동시에 어머니를 도와 오스트리아를 공동 통치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장자 요제프 2세는 178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명실상부한 일인 통치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어머니가 도입하기 시작한 제반 개혁정

책을 속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정책들을 헝가리에도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넓은 시야를 소유한데다가 품성이 선천적으로 청렴한 인간이었다. 그는 또 앞선 어느 황제보다도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인간성을 소유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가 1766년 빈의 유원지 프라터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황제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쏟는다는 비판이 측근 귀족들에게서 일자 만일 동등한 신분의 사람들하고만 교류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 인생을 가족묘지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응수한 일화는 계몽군주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엿보게 한다. 그가 계획했던 제국은 계몽된 관리들이 황제를 도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국가조직을 운영하는 체제이어야 했으며, 그 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이성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었다. 그는 일련의 포괄적 개혁작업에 돌입했다. 부역과 고문의 폐지를 제외한 많은 개혁조치들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카톨릭을 국교로 정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선대(先代)인 카알 6세 때까지만 해도 기타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은 범죄였었다. 그러나 요제프 2세는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민족 집단의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으며, 심지어는 유대인에게까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이 반포되기도 했다. 정교(政敎)분리 정책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제프 2세가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무제한의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국익에 유익한 쪽으로 제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으니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교회와 관련된 분야 치고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한 가지도 없었을 만큼 국권을 교권보다 상위에 위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결함으로써 교황청과의 마찰을 야기시켰다. 요제프 2세는 개혁작업을 제국에 종속된 모든 다민족 개별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개혁에 필요한 언어를 독일어로 통일했다. 독일어는 이제 제국의 공용어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절대군주제도 위에서 전개된 요제프 2세의 개혁작업의 정신을 일컫는 요제프주의(Josefinismus)는 환언하면 요제프 황제의 통치철학의 표현형식이라 하겠다. 요제프주의는 독일 언어권의 영역을 동구라파 깊숙한 지역까지 확대시킴으로

써 독일어권 문화영역의 동진 정책에 기여했다. 1875년 부코비나 Bukowina 합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코비나의 — 우크라이나 서남지역과 루마니아 동북지역을 합한 지역 — 수도 체르노비츠 Czernowitz에 황제의 이름을 딴 <프란츠 요제프 대학 Franz Josephs Universität>을 합스부르크 제국이 창립한 것도 결국 요제프주의 한 결실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도 동구라파의 여러 지역이 독일어권 언어영역으로 남아 있게 된 연유가 설명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요제프 2세의 개혁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유럽의 어느 왕실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근대화된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한 초석 놓기였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한 세기 반이 지난 20세기 초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시대를 앞 선 혁명적 조치이었다. 그러나 요제프 2세의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된 각종 개혁 정책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난관을 만났다. 특히 토지세금 부과와 관련한 경제정책과 종교정책은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럴 것이 일 반토지세는 귀족을 제외시키지 않았으며 1781년 10월 13일에 반포된 역사적인 <관용칙령 Toleranzpatent>과 더불어 허용된 종교 선택의 자유와 함께 교권을 국권에 종속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회제도의 개혁은 성직자들의 첨예한 저항을 만났다. 수도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성직자의 급료지불에 사용한다든지, 교구의 신설과 국립 성직자 양성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발상을 포함한 교회제도와 관련된 조치들은 황제의 사후(死後) 대부분 원상회복되었다.

III. 1차 술레지엔 전쟁

프로이센이 주축이 되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독일인들은 오늘날 프리드리히 2세(1740-1786)를 <프리드리히 대왕>이라 칭하면서 그의 업적을 평가하지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침략자였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 여자가, 그것도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의 정치판에서 이름도, 인기도 없는 로트링겐 Lothringen가의 공작과⁵⁾ 혼인을 맺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60여 년 간 지속된 전쟁으로 바닥이 드러난 국고를 물려받은 데다가, 국력도 쇠진한 대제국의 수반으로, 그것도 자신과 같은 해에 등극한 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프리드리히 2세는 이 기회를 영토확장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입지는 극도로 불안했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오스트리아 제국이 통치한 부유한 공국 슬레지엔 — 오더 Oder강 동안(東岸)지역의 폴란드 영토 —으로 진격하여 오스트리아 군대가 방어대열도 채 정비할 시간도 허락치 않고 1741년 슬레지엔의 수도 브레스라우를 점령해 버렸다. 그야말로 그것은 전격전 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에게는 회한의 일격이었다. 1740년에 발발하여 1742년까지 지속된 이 전쟁이 <제1차 슬레지엔 전쟁>이며 슬레지엔 전쟁은 3차까지 합해 1763년에 비로소 끝이 난다. 국지전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전쟁으로 확대된 이 전쟁은 종전 무렵에는 북아메리카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해외 식민지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간의 힘겨루기로 발전한다. 좁게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전쟁이며, 넓게는 양국을 지원한 주요 동맹국들인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슬레지엔을 점령했고, 영국은 그때까지 프랑스가 쥐고 있던 해상주도권을 빼앗았다. 200여 년 후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제2차 대전과 1차 슬레지엔 전쟁을 비교해 보면 두 전쟁이 흡사한 방법으로 전개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 히틀러가 역대 독일 왕 중에서 가장 평가한 왕이 프리드리히 2세이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1740년 12월에 시작된 제1차 슬레지엔 전쟁은 174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제까지 오스트리아와 끊임 새 없이 영토분쟁을 겪어 왔던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의 기회를 틈 타 영토

5) Franz I. Stephan(1708-1765): 마리아 테레지아의 선왕 Karl 6세의 부마(駙馬)가 되기 위해 1723년부터 Wien의 황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것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등극하고 5년이 지난 1745년의 일이었다.

상의 요구를 제기하려는 의도를 지닌 국가들을 선두 지휘해 오스트리아에 대항했다. 그 결과 바이에른·프랑스 연합군이 뉘른베르크를 침공하여 바이에른의 선제후 카알 7세 알브레히트(1745년 1월 20일 사망)를 1741년 12월 29일 — 오스트리아 황제가 겸임해 온 — 뉘른베르크의 왕으로 선출한다. 카알 7세 알브레히트는 1711년에 사망한 독일황제 요제프 1세(1705-1711)의 사위이며 레오폴트 1세(1658-1705)의 손자사위이며 페어디난트 3세(1637-1657)의 증손사위였다. 그는 형 요제프 1세를 승계한 카알 6세(1711-1740)의 장녀 마리아 테레지아보다는 자신이 더 적통(嫡統)임을 자임함으로써 <국본조칙 Pragmatische Sanktion>의⁶⁾ 내용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제1차 슐레지엔 전쟁과 제2차 슐레지엔 전쟁을 합쳐서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Österreichischer Erbfolgekrieg>(1740-1748)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713년에 카알 6세가 제정한 국본조칙을 무시한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카알 7세가 1742년 1월 24일 독일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으니까, 뉘른베르크 왕위에 등극한 후 2개월이 안된

6) 1703년의 <상호계승약관 Pactum mutue successionis>에서 레오폴트 1세 황제는 합스부르크가의 양대 가문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레오폴트 1세의 장남 Joseph 1세 가계)와 스페인 합스부르크가(레오폴트 1세의 차남 Carlos 왕 가계)의 부계(父系) 혈통이 단절될 경우 요제프가의 모계(母系) 자손이, 요제프가의 모계혈통도 소멸되는 경우에는 스페인의 카를로스의 모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점을 유언으로 확정지은 바 있었다. 1711년 요제프 1세가 돌연 사망하자 스페인 왕이던 요제프 1세의 동생 Karl 6세는 빈으로 귀환하여 독일황제의 지위에 올랐는데 등극하던 해에 이미 요제프황제 가계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자기자신의 딸들과 그 후손들을 후계자 그룹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1713년 4월 19일 *Johann Friedrich von Seilern* (1646-1715)에 의해 완성된 새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 합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불가분(不可分)성을 규정하면서, Karl의 여계(女係) 자손들에게 남계(男系)가 끊어졌을 경우 장녀 우선 순위에 따라 왕위계승을 보장했으며, Karl 가계가 완전 소멸할 경우에 한해서 요제프 가계의 여계 자손들의 계승을 규정했다. 1724년에 합스부르크가의 가헌(家憲)으로 선포된 이 <국본조칙>에 바이에른과 작센이 반발해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Österreichischer Erbfolgekrieg>을 야기 시켰다. 바이에른 선제후와 작센 선제후의 부인들이 각각 요제프 황제의 여식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카알 6세 황제는 정치적인 양보를 해 가면서 지루한 협상을 벌여 이 왕위계승 규정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동의를 통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렵게 선친인 Karl 6세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왜냐 하면 부계혈통의 자손만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갈리어 왕조의 헌법 das salische Gesetz>이 종래의 유럽 왕실의 규범이었었기 때문이었다.

시점이었다. 1745년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 프란츠 1세(슈테판)이 독일제국 황제 겸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인정받을 때까지 3년 동안 그는 칼 7세로서 이름뿐인 황제의 자리를 지켰다. 프란츠 슈테판 공작(1745년부터 프란츠 1세 황제)은 정통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선제후 회의는 독일제국 황제의 자리를 그들에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1740년 10월부터 15개월간은 — 카알 6세가 사망한 1740년 10월 20일부터 카알 7세가 황제로 선출된 1742년 1월 23일까지 — 독일제국 황제 공위 기간이었다. 동시에 그 시기는 1차 슐레지엔 전쟁 기간과 겹친 기간이기도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제국의회에 원병을 요청했고 헝가리 등이 5만의 군대를 동원해 주자 전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프로이센의 동맹군이었던 프랑스와 바이에른의 연합군도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영국과 네덜란드 동맹군의 개입으로 제압이 되었고 심지어 바이에른은 차제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점령해 버렸다. 독일황제로 선출된 카알 7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황제 대관식을 가진 이들 후의 일이었다. 영국의 조지 2세가 진두지휘한 마인 강변의 데팅엔 Dettingen 전투(1743년 6월 27일)에서 영국군의 지원을 업은 오스트리아 군은 프로이센 군대에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1742년 슐레지엔의 수도 브레스라우에서 체결된 예비강화조약(1742. 6. 11) 및 베를린 평화조약 체결(1742. 7. 28)과 더불어 1526년 이후 합스부르크가가 통치하던 슐레지엔은 프로이센에게 양도되고 뉘른베르크의 왕위를 되찾는다. 카알 7세는 1745년 1월 20일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막시밀리안 3세는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령에 대한 영토상의 이의를 향후 제기하지 않으며 독일황제의 자리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담은 <뉘른베르크 조약>에⁷⁾ 서명한 후 바이에른

7) Füssen 평화조약(1745년 4월 22일). <오스트리아 계승전쟁>(1741-1748) 시 프랑스와 동맹한 비텔스바흐가의 Karl Albrecht von Bayern은 Karl 7세로 독일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1745년 1월에 벌써 사망했다. 그의 후계자 Maximilian III. Joseph은 바이에른을 점령한 오스트리아 군대의 위협을 받아 오스트리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개 조항을 포함하는 <Füssen 평화조약>에서 <국본조칙 Pragmatische Sanktion>을 승인하고 국본조칙의 내용과 일치될 수 없는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황제 선출 시

을 오스트리아로부터 되찾는다. 그밖에도 막시밀리안은 그의 부친이 반대한 국본조칙을 인정함은 물론이고 곧 있을 독일 황제 선출 시 토스카나 공작이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 1세에게 선제후로서 한 표를 던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1745년 4월 22일의 일이었다. 1745년은 3년간의 공백기 이후 독일황제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자리가 다시 오스트리아 왕가로 돌아온 해였다.

IV. 2차 슐레지엔 전쟁

프로이센의 전격적 침공으로 영토상의 손실을 입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자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진작시키는 정책에 매달려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리드리히 2세를 <슐레지엔 도둑>, <나쁜 놈>, <괴물>, <더러운 이웃>, <상수시궁의 은자> 등 황제의 입으로는 공공연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동원하여 적대감을 표시한 것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프리드리히 2세의 1차 침공으로 슐레지엔을 잃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실지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국가의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군대의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복원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프리드리히 2세는 1744년 재차 침공해 온다. 이 두 번째 침공을 가리켜 역사는 <제2차 슐레지엔 전쟁>이라 적고 있다. 잘 훈련된, 전투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군대를 앞세운 프리드리히 2세의 계산된 의도는 강제로 빼앗은 땅의 소위 <굳히기> 작전이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선천적으로 죄의식을 덜 느끼는 유형의 인간이었는지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같은 해에 즉위한 프리드리히 2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 Franz Stephan von Lothringen을 지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오스트리아는 바이에른의 국토를 1741년의 경계선으로 인정해 주고 전쟁배상금을 면제해 주었다.

인물로서 독일어권의 양대 열강인 오스트리아를 여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으로 받아 들였는지도 모른다. 프리드리히 2세의 제2차 침공은 1742년 <브레스라우 예비평화 회담> 및 <베를린 평화회담>때 이미 인정한 국본조칙의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1744년 6월 5일 프랑스와 새로운 동맹조약을 체결한 프리드리히 2세는 여세를 몰아 9월 16일 뉘벤 왕국의 수도 프라하를 점령한다. 오스트리아는 작센 공국, 영국, 네덜란드와 4국 동맹을 결성하여 프로이센과 대치한다. 이 전쟁은 1745년 12월 25일 드레스덴 평화조약과 더불어 막을 내린다.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인 프란츠 1세의 독일황제 등극에 대한 프로이센의 승인을 얻어내는 조건으로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게 완전히 넘겨준다. 그러니까 국본조칙의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장받은 오스트리아와 슐레지엔에 대한 영토권을 영구히 보장받은 프로이센 양국 모두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계승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뉘벤 평화조약>으로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드레스덴 평화조약>으로 슐레지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프로이센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북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에서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영국의 군대와 벌인 전투는 1748년까지 지속되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전쟁이 양방의 동맹국들인 영국과 프랑스간의 그것으로, 그리고 전쟁의 무대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사르디니아가 오스트리아를, 스페인이 프랑스를 지원하고 나선데다가 영국과 프랑스간의 역사적인 적대감정이 양국간의 해외 식민지 주도권 쟁탈 문제로까지 발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1720년부터 프랑스군에서 교육을 받아 프랑스 육군의 원수가 된 **모리츠 폰 작센 장군** (1696-1750)이 이끈 프랑스군대는 초기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1746년 이후 오스트리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의 개입으로 전쟁을 포기한다. 모리츠는 작센 공국의 선제후였다가 폴란드 왕위에 오른 아우구스트 2세(1670-1733)의 서자 출신으로서 프랑스에서 성장한 독일인이다. 스페인 북서쪽 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도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에게 참패한다. 1748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 평화회담은 반년이나 지난 10월 18일에 결실을 맺는다. <아헨 평화조약> 체결로 오스트리아는 서쪽으로는 프랑스에게 양도한 이탈리아의 파르마와 피아첸차를, 북쪽으로는 프로이센에게 양여한 슬레지엔을 제외한 전 지역을 보유하게 된다. 국본조치를 둘러싼 잡음의 소지를 일소했음은 물론이다. 이로써 1740년 마리아 테레지아가 부왕 칼 6세의 대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시작된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은 8년을 끈 끝에 드디어 그 막을 일단 내린 셈이었다.

<아헨 평화회담>의 오스트리아측 대표는 카우니츠 Wenzel A. Kaunitz (1711-1794) 백작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를 1753년 수상 Staatskanzler에 임명했다. 이 직책은 오스트리아의 외교정책과 황실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겸하는 기능과 같았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카우니츠 기용은 현명한 처사였다. 카우니츠 백작의 외교정책의 기저는 1, 2차 슬레지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동맹국이었던 영국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프로이센에 대한 원한에서 출발했다. 이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내심과의 완벽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헨 평화회담>에서 슬레지엔 양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여제(女帝)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을 유럽 대륙 한가운데 고립시키는 작전이 주효할 것임을 간파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국이 아니라 대륙의 열강인 프랑스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우니츠는 오랜 외교적 노력 끝에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당시 프로이센의 동맹국이던 프랑스와 방위조약을 성사시키고 러시아 및 스웨덴과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프로이센은 남쪽의 오스트리아와 북쪽의 스웨덴, 그리고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에 의해, 다시 말해 유럽의 4대 열강 중 영국을 제외한 3대 열강과 그들의 동맹국들에 의해 말하자면, 사방으로부터 포위를 당하는 위기를 맞았다. 해외 식민지 확장과 해상 주도권을 놓고 프랑스와 역사적인 갈등을 빚어 온 영국이 프로이센과 손을 잡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누가 말했던가.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시 오스트리아를 도와 프로이센군과 전쟁을 벌였던 영국은 이제 프리드리히 2세를 지원하는 유일한 열강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8년 전까지만 지금이나 한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적대관계이었다. <7년 전쟁>(1756-1763)이라고 일컫는 이 전쟁은 두 갈래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영토전쟁인 <3차 슐레지엔 전쟁>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간의 식민지 쟁탈전쟁이다.

V. 3차 슐레지엔 전쟁과 프로이센의 부상

1, 2차 슐레지엔 전쟁이라고도 하는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의 원인을 제 공한 국가는 프로이센이었으나, <7년 전쟁>의 동기는 실지회복을 위해 전전긍긍하던 마리아 테레시아가 카우니츠로 하여금 프랑스와는 방위조약을, 러시아와는 동맹조약을 체결케 한 외교적 성과가 물고 왔다. 3대 열강의 포위로 고립무원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프리드리히 2세의 대답은 군사적 선제대응이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동맹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1756년 1월 하노버를 방어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방위조약>을 영국과 체결한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5월에 <베르사이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 작센, 스웨덴 그리고 하노버와 헤센-카셀과 브라운슈바이크를 제외한 독일제국의 제후국들을 기존 오스트리아-프랑스 동맹조약에 가입시킨다. 동맹국들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프리드리히 2세는 1756년 8월 29일 공격거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우선 인접한 작센 공국을 침공한다. <7년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프로이센으로서는 주민의 수로 환산해 20배나 덩치가 더 큰 적국들을 상대로 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로보지츠 Lobositz 전투(1756. 10. 1)에서 작센을 굴복시키고 프라하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대를 제압하지만 엘베강변의 도시인 콜린 Kolin에서⁸⁾ 오스트리아군에 대패한 후 프리드리히 2세는 뉘른베르크에서 철군한다. 1762년까지 프리드리히가 승리한 전투는 프라하(1757. 5),

로스바흐 Rosbach(1757. 11), 로이텐 Leuthen(1757. 12), 초른도르프 Zorndorf(1758. 8), 리크니츠 Liegnitz(1760. 8), 토르가우 Torgau(1760. 11), 부어커스도르프 Burkersdorf(1762. 7), 라이헨바흐 Reichenbach(1762. 8), 프라이베르크 Freiberg(1762. 10)전투 등이며, 1757년 6월 뵘엔의 콜린 전투에 패한 이후 프로이센군이 <7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군에 패한 전투는 그로스예거스도르프 Großjägerndorf(1757. 8), 호호키어히 Hochkirch(1758. 10), 쿠너스도르프 Kunersdorf(1759. 8)전투 등이다. 특히 쿠너스도르프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왕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기를 맞았으며, 설상가상으로 1760년에 프리드리히 2세의 영국 측 동맹 파트너였던 피트 William Pitt(1708-1778) 백작이 실각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전쟁 지원금 지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리크니츠와 토르가우에서의 전승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 입지는 크게 악화되어 프리드리히 2세는 거의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이때 프리드리히 2세를 구해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동부전선을 지켜준 러시아 황제 엘리자베스 Elisabeth Petrowna(1709-1762)의 예기치 않은 죽음이었다. 리크니츠와 토르가우에서의 패전 이후 오스트리아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고 국가채무도 당시의 프랑스 통화로 계산할 때 4,900만 리브르에서 1억 3,600만 리브르로 증가하는 등 오스트리아의 전쟁수행 능력도 현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여황(女皇)의 뒤를 이어 즉위한 카타리나 2세(1729-1796)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해지하고 전쟁을 중지한다. 국력소모로 인해 프랑스와 스웨덴도 동맹탈퇴를 결정하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평화협상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763년 2월 15일 행정구역상 라이프치히에 속한 소도시 베름스도르프 Wernsdorf의 후버투스부르크 Hubertusburg 성에서 조인된 평화조약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에 진행된 7년 전쟁은 막이 내린다.

8)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 벌인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다. 프로이센은 13,700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그 중 3,700명은 투항자였다. 오스트리아도 8,000의 병력을 잃었다. 오스트리아는 콜린 승리로 프라하를 탈환했고 <프리드리히 볼패>의 신화를 썼다.

영국과 프랑스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의 7년 전쟁인 <제3차 슐레지엔 전쟁>에도 개입했지만 유럽대륙이 아닌 북아메리카와 인도 등에서의 자국 식민지의 확장을 놓고 자기들끼리도 <7년 전쟁>을 벌인다. 양국의 식민지 쟁탈전은 프랑스 함대를 영국해군이 제압한 후 해상보급로가 영국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면서 결판이 난다. 크롬웰과 윌리엄 3세 이후 가장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로 평가받은 윌리엄 피트가 정권을 장악한 1757년 이후 1761년까지 그는 해외 함대를 증강시켜 프랑스로부터 해상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때마침 프랑스가 영국의 옛 동맹국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자 캐뮬리 프로이센의 요청에 구원의 손을 내민다. 언급했듯이 영국은 <하노버 방어조약>을 프로이센과 체결함과 동시에 프랑스함대와의 대 회전에 돌입한 영국 해군은 1759년 9월에 캐나다의 퀘벡을, 이듬해 9월에는 몬트리알을 각각 함락시키고 1762년까지 카리브해역의 프랑스 식민지도 모두 빼앗아 버린다. 1761년 스페인이 프랑스 편을 들어 참전하자 영국은 스페인이 통치하던 쿠바와 필리핀까지 점령해 버린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뽕골만의 자국 기지도 영국해군에 의해 점령당한다. 1762년 11월 퐁텐블로 Fontainebleau에서 진행된 예비 평화회담에서 프랑스는 미시시피 서안(西岸)의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 양도한다. 영국과 프랑스간의 7년 전쟁은 1763년 2월 10일에 조인된 <파리 평화조약> 체결과 더불어 종식된다.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에 영토상의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사에서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 왔다. 첫째 이 전쟁은 유럽을 4강 체제에서 5강 체제로 만들어 주었다. 프리드리히 2세의 꿈이 실현되어 프로이센이 드디어 자타가 인정하는 유럽의 제5 열강으로 부상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에 대한 영토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마리아 테레시아의 장자 요제프 2세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등극에 대한 동의를 프로이센으로부터 받아낸 외교적 성과만으로 자위해야 했다. 둘째 독일의 통일정책의 방향이 이때 결정되었다. 장래의 독일통일에 있어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는,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통일을 지칭하는 소위 <소독일주의>의 개념이 <7년 전쟁>을 치르면서 형성되어 1866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셋째 독일인들의 민족감정과 정치적 자의식이 프리드리히 2세라는 인물과 그의 업적에서 불붙기 시작한다. <7년 전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영국간에 힘의 균형을 깨트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파리 강화조약>으로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와 인도의 모든 식민지를 영국에 양도하고, 영국으로부터는 생피에르 Saint-Pierre섬과 미클롱 Miquelon 섬을 얻는다. 이 섬들은 1814년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토분쟁 대상지역이었다가 프랑스 영토로 확정된 것은 1816년 이후 프랑스 인들이 이주한 이후부터이다. 스페인은 1762년에 획득한 식민지와 플로리다를 영국에 내주어야 했다. 한 마디로 말해 해상주도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후버투스부르크 평화조약>의 당사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였고, <파리 평화회담>은 영국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양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7년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오스트리아와 그 동맹국의 군대는 수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 2세의 탁월한 전술과 프로이센군의 강인함을 만나 국력만 소모시킨, 자존심의 대결을 벌인 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측이 이 전쟁을 승리 직전까지 몰아부쳤다가 실패로 끝나 버린 것은 동맹국인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 군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59년 8월 12일 오더강 동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쿨름스도르프 전투 당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동맹군은 프리드리히 2세를 항복 직전의 상태로 몰아갔다. 여세를 몰아 러시아군은 베를린에까지 침입해 들어갔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것이 오스트리아 측의 전략상의 실수로 기술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패전국이 승전국에 여러 가지 형식의 배상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7년 전쟁>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구별이 불명확했던 전쟁이었다. 1763년 2월 15일 후버투스부르크 성에서 전쟁 당사국들이 무배상무병합(無賠償無併合) 강화조약 Verständigungsfriede에 서명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제(女帝) 마리아 테레지아는 실지회복의 꿈은 영원히 포기해야 했지만, <7년 전쟁>을 통해 유럽의 열강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이끌어 내는데는 탁월한 수완을 과시했다. 그러나 여제의 입장에서는 북 독일에서의 주도권을 새로이 부상한

열강 프로이센에게 넘겨버렸다는 인식이 슐레지엔을 상실한 것보다 훨씬 더 가슴아팠을 것이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에 벌어진 역사상 최장기전이었던 <7년 전쟁>은 그러나 독일어권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벌인 다툼의 시작에 불과했다. 합스부르크가와 호엔촐러가 사이의 이 주도권 다툼은 1866년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하고, 1871년 소독일주의가 그 최종적 결실을 맺은 독일 통일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으로 지속된다.

<7년 전쟁>이 끝난 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제국 소속의 제후국들을 결속시키고 합스부르크가의 영지를 지키는 데 온 국력을 쏟는다. 재위 기간 동안 또 한 차례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치른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바이에른 계승전쟁 Bayrischer Erbfolgekrieg>(1778-1779)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1777년 비텔스바흐 Wittelsbach가가 배출해 오던 바이에른 선제후 가문의 대가 끊기자 비텔스바흐 가의 지파(支派)인 팔츠 선제후국의 선제후 칼 테오도어 Karl Theodor는 양 가문의 합가(合家)를 시도하였다. 이를 허용할 경우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인접 제후국 바이에른의 대국화를 염려한 독일제국 황제 요제프 2세는 섭정자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더불어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이에른과 팔츠의 일부 지역을 합스부르크 제국에 합병함으로써 슐레지엔 상실 이후의 추락한 위신을 회복하고 독일제국 내에서의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하려 했다. 영토확장을 왕정의 지상목표로 삼고 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이를 두고볼 리가 없었다. 작센과 힘을 합한 프리드리히 2세는 1778년 뉘른베르크를 출동시켜서 단기간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을 때, 러시아와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중재하여 두 나라를 전투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인도한다. 이 무혈전쟁을 일컬어 사가들은 <감자전쟁>이라 조소했다. 전투는 없이 식량 노략질이 성행했고 <7년 전쟁> 동안에 중부 유럽까지 전파된 감자가 이제는 군대의 주식으로 자리 잡아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감자 죽이기> 전쟁이라는 비아냥거림이었을 것이다. 1779년 5월 13일에 테셴(Teschen⁹⁾)에서

9) 1차 대전 종전 후 폴란드의 주권회복으로 체코와 폴란드의 도시로 각각 반분되어 버린

강화조약이 조인되었고, 이 조약체결로 오스트리아는 인 Inn강(江)을 중심으로 한 알프스 지역을 자국 영토에 병합시킨다.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향후 프로이센이 바이에른의 안스바하 Ansbach와 바이로이트 Bayreuth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서명한다.

<테센 평화회담>의 오스트리아측 대표 역시 카우니츠 백작이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즉 1, 2차 세계대전 기간 내내 적국이었던 프랑스를 1756년 자국 방위를 위한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동맹체제를 발전시킨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은 이번에는 프로이센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킨다는 그의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프로이센의 동맹국으로서 유럽대륙에서 진행된 <7년 전쟁>에 기여한 공로는 대단한 것이 못되었다. 그럴 것이 대륙에서의 전쟁은 어차피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주 관심은 인도와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식민지들도 <7년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프랑스와 영국간의 쟁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대(對)오스트리아 군사원조는 처음에는 차관공여에 국한되어 있었다. 러시아를 동맹관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나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태로서는 독자적인 해결이 불가능했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카우니츠 백작의 위대한 외교적 업적은, 프랑스와의 합의를 1년 후 군사협약으로 전환시켰으며, 프랑스로 하여금 제2의 독일 열강의 부상을 유럽대륙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6년 동안이나 오스트리아를 도와서 전쟁을 수행케 만든 사실에 있다. 프랑스가 유럽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의 독일, 즉 프로이센의 대국화를 바라보고만 볼 리가 없을 것이라는 프랑스의 심리를 오스트리아가 역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를 동맹국으로 만든 것보다 더 큰 카우니츠의 업적은 — 언급했듯이 — 오스트리아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러시아를 오로지 오스트리아의 국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편에 끌어들이었다는 사실이

다. 거기에는 물론 카타리나 2세의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도 큰 몫을 했다. 표트르 3세(1728-1762)는 엘리자베스 황제의 승계자의 자격으로 러시아로 귀환한 1742년 이전까지는 독일제국 소속인 홀슈타인-고토르프 Holstein-Gottorf의 공작이었었다. 그는 홀슈타인-고토르프의 공작 카알 프리드리히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1672-1725)의 딸인 안나 피트로브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써 1739년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홀슈타인-고토르프 공작령을 통치하다가 1742년 황태자의 자격으로 외할아버지 표트르 1세의 나라 러시아로 소환된다. 1745년 후일 카타리나 2세(1762-1796)가 된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여 애초부터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트르 3세는 홀슈타인 공국을 통치하던 시절부터 — 홀슈타인-고토르프 공작 시기의 독일식 이름은 칼 페터 울리히이 Karl Peter Ulrich었다 —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왔었다. 남편에 대한 프리드리히 2세의 총애는 자연히 카타리나로 하여금 남편과 프리드리히 2세를 동일한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카우니츠 백작은 카타리나 2세의 개인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러시아를 오스트리아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베를린까지 진격하여 프리드리히 2세를 항복 직전까지 몰아갔을 때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 러시아의 황제 엘리자베스가 돌연사 한 것이다. 바로 그 날 친 프로이센 파인 표트르 3세가 러시아의 황제에 등극하고 서둘러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오스트리아와의 <7년 전쟁> 동맹관계를 청산해 버린다. 남편과 프리드리히 2세를 동시에 증오한 카타리나 2세의 추종 세력들로 구성된 일단의 장교들이 1762년 7월 9일 쿠데타를 일으켜 카타리나 2세를 새로운 러시아의 황제로 추대하고 표트르 3세는 7월 18일 의문의 죽임을 당한다. 표트르 3세의 재위기간은 1762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에 불과했다. 남편이 황제로써 러시아를 지배하는 한 벗어나지 못할 친 프로이센 노선 내지는 프로이센 종속의 가능성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카타리나 2세의 의도였던 것이다.

VI. 나폴레옹 침략전쟁과 독·독 갈등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영토 확장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라는 특징을 가진다. 오스트리아는 영국 다음으로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그 어느 유럽국가보다도 오래 치른 나라이었다. 혁명 프랑스 군대의 광분을 처음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국가 역시 오스트리아이었다. 1792년 4월 20일 지룽드파의 재촉으로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를 향해 선전포고함으로써 시작된 유럽의 전쟁은 — 간헐적인 휴전기간을 무시한다면 — 1813년 해방전쟁에서 오스트리아·러시아·프로이센 동맹군에 의해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어권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지속되었다. 대혁명 이후 유럽의 최대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위시하여 프로이센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 등은 4차에 걸친 군사동맹을 국가 간의 현안과 국익을 고려하여 그때 그때마다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결성하여 프랑스에 대항한다. 이들 동맹국들이 수행한 대 프랑스전쟁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동맹전쟁이라고 하며 <1차 동맹전쟁>(1792-1797)과 <2차 동맹전쟁>(1798-1802)을 합쳐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고도 부르며 <3차 동맹전쟁>(1805)과 <4차 동맹전쟁>(1806-1807)은 <나폴레옹 전쟁>이라고도 기술한다.

1792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하자 프로이센과 사르디니아가 즉각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침공에 대항한다. 1793년 봄에는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나섬으로써 <제1차 동맹>이 완성된다. 우여곡절 끝에 한편으로는 동맹 내부에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병(散兵)전술을 도입한 프랑스군의 탁월한 전략으로 1794년 프랑스군은 대승을 거둔다. 결국 프로이센은 1795년 4월 5일 스위스 바젤에서 프랑스와 단독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전쟁에서 발을 뺀다. <바젤 평화조약> 체결로 프랑스는 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자연 국경선>을 프로이센으로부터 인정받음과 동시에 라인강 좌안(左岸)지역을 그들의 영토에 편입시킨다. 프로이센은 라인강 좌측의 독일제국 영토가 프랑

스에 편입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마인 선(線)>¹⁰⁾ 이북의 독일제국 영토를 중립화시키는 데 성공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후일의 <두개의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포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인강 좌안의 프랑스 국경 쪽 영토는 프로이센이 아닌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마인 선>은 북독과 남독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했으며, 1806년까지는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독일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계선 이북지역을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프로이센으로서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1871년 독일제국의 통일과 더불어 <두개의 독일문제>가 극복되기까지 마인강 이북의 22개 군소 국가들과 자유시를 엮어서 <북독일연방>을 일구어 낸 것도 통일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한 프로이센의 정치 외교적 성공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직접적 영향권이었던 마인강 이남의 남독일 국가들의 <북독일연방> 합류는 독불 전쟁(1870-1871) 개전 초기였던 1870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남독일국가들의 <북독일연방> 가입은 수개월 후로 박두한 독일통일의 최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개의 독일>이 나누었던 전쟁의 부담을 이제 혼자 떠안게 된 오스트리아는 군사적 천재인 청년 나폴레옹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1796년 봄부터 프랑스군대를 지휘한 나폴레옹은 북이탈리아와 토스카나 Toscana에서 오스트리아 군에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슈타이어마르크 Steiermark주(州) 깊숙한 지역까지 진격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프랑스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1797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의 광업도시 레오벤 Leoben에서 예비평화회담을 가

10) 19세기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의해 세력이 양분된 <양독체제Dualismus>를 옹호하는 국가도 있었고, 남독의 중소제후국들에 의해 주장된 <3독 체제Trias>론도 주목을 끌었다. 양독 체제 사상에 의하면 독일은 마인강 북쪽의 프로이센 영향권과 남쪽의 오스트리아 영향권으로 나뉘었다. 1867년 창설된 <북독일연방>의 남쪽 국경을 마인선 Mainlinie선(線)으로 한 것은 오스트리아를 의식한, 즉 양독 체제 Dualismus를 고려한 때문이 아니라 — 대외적으로는 — 북독일연방의 확대를 염려하여 남독일연방의 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일종의 양보이었고 — 대내적으로는 — 여전히 반(反)프로이센 정서가 강한 남독의 분립주의 Partikularismus에 대한 고려이었다.

진 6개월 후인 1797년 10월 17일 이탈리아의 캄포 포르미오 Campo Formio에서 평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1차 동맹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난다. 오스트리아는 1795년 이후 프랑스가 점령해 버린 바젤Basel에서 안더나흐 Andernach에 이르는 라인강 좌안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해야 했다. 안더나흐는 <빈 회의>의 결과로 1815년 다시 <독일연방 Deutscher Bund>의 영토로 환원될 때까지 프랑스가 소유했다. 그밖에도 오스트리아는 벨기에와 밀라노를 프랑스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유고 영토인 달마치아 Dalmatien와 이스트리아 Istrien 반도, 그리고 베네치아 Venetien공국¹¹⁾을 획득한다. 이로써 베네치아 공국은 1797년 프랑스 군대가 마지막 총독을 강압적으로 퇴위시키면서 천년 역사를 마감하였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합병되어 1866년 이탈리아에 반환될 때까지 합스부르크 제국의 관할 하에 놓인다.

오스트리아가 영국, 러시아, 터키, 포르투갈, 나폴리 등의 국가들과 동맹체를 결성한 것은 프랑스의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여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에 위성 공화국을 건설하고 심지어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까지 감행한 1798년의 일이었다. 이집트의 아부키르 Abukir만(灣)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지휘하는 영국함대의 습격을 받아 나폴레옹의 군대가 크게 패하기도 했지만, 유럽대륙에서의 힘의 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만큼의 상송세를 꺾어야 할 필요성을 독일제국은 당연히 느꼈을 것이다. 독일황제 겸 오스트리아황제였던 프란츠 2세 휘하의 독일제국 군대는 개전과 더불어 벌어진 몇몇 전투에서 나폴레옹 침략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1799년 3월 21일 오스트라흐 Ostrach 전투와 3월 25일 슈토크아흐 Stockach 전투, 6월 4일 취리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Lombardei와 피에몬트 Piemont를 프랑스의 수중에서 탈환한다.

그 사이에 1797년 12월 9일부터 1799년 4월 23일까지 캄포 포르미오 평화회담의 후속회담 성격을 띤 <라슈타트 Rastatt 평화회담>이 전쟁재발로 인해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된다. 독일제국은 라인강 좌안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

11) 포 Po강 이북의 북이탈리아. 수도 베니스 Venedig와 군항 트리에스트 Triest가 포함된다.

함으로써 이 지역에 영지를 가지고 있던 독일제국 소속 세속제후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제국직할시와 성직제후들이 소유한 봉토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대내적으로 취한 것이 라슈타트 회담이 가져다 준 회담의 간접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개전 초기 전투에서 거둔 일련의 승리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와 그 동맹군은 대 프랑스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동맹국들간의 전쟁수행의 목표설정이 다르기도 했지만, 특히 1799년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취리히 근교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동맹탈퇴를 선언해 버렸다. 다른 한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귀환한 1799년 11월 이후 발생한 전투에서도 프랑스군은 연승가도를 달렸다. 1800년 6월에는 마렝고 Marengo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부 이탈리아를 빼앗고, 12월에는 남부 독일로 진격하여 뮌헨을 점령한다. 뮌헨이 나폴레옹 군대의 수중에 들어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앉는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외상 겸 수상이었던 투구트 Thugut 남작(1736-1818)은¹³⁾ 프로이센과 프랑스를 배척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었

12) 1795년 <Basel 평화조약>, 1797년 <Campo Formio 평화조약>, 1797-99년 <Rastatt 평화조약>과 1801년 <Lunéville 평화조약> 제7조는 프랑스에 양도된 라인강 좌안 지역의 영지에 대해 <교회재산국유화 Säkularisation>와 <제국직속에서 제후직속으로의 관할이전 Mediatisierung>을 통해 라인강 우안 지역의 세속 영토를 보상해주려고 1801년 10월 2일 제국의회는 마인츠, 작센, 브란덴부르크, 뉘른, 바이에른 등 5선제후, 뷔르템베르크 공작, 헤센 방백, 독일기사단 방백의 전권 대리인들에게 손실 보전 계획을 결의하게 하였으니, <독일제국대표자회의결의 Reichsdeputationshauptschluss>가 그것이었다. <독일제국대표자회의결의>에 의해 재산이 국유화되고 황제직속에서 봉건영주직속으로 관할이 이전된 제후국은: 1개 세속 선제후국과 2개 성직 선제후국(Kurpfalz, Kurköln, Kurtrier), 19개 제국직속주교구, 44개 제국직속대수도원, 41개 제국직속도시 등이었는데, 지배권뿐 아니라 재산권도 공히 세속 제후국의 소유로 넘겨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최대 규모의 독일제국 영토 재편과 프랑스에 종속도가 달한 중부제후국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13) Johann Amadeus Franz de Paula Freiherr von Thugut(1736-1818): 1794년 Kaunitz의 후임 수상에 임명됨. 프랑스 대혁명으로 프랑스 소재 재산을 상실한 것 때문에 나폴레옹을 적대시했던 그는 <Rastatt 평화회담>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차 동맹전쟁> 때 러시아의 지원을 업고 대 프랑스 전쟁을 수행했으나 1799년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의 군사동맹을 탈퇴하게 해 패전을 자초했다.

던 연유로 해서 협상의 적기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1800년 12월 3일 뮌헨 근교의 에버스베르크 Ebersberg 전투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하자 황제 프란츠 2세는 그해 성탄절 날 투구트 수상을 전격 해임한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당사국으로 한 <뤼네빌 Lunéville 평화협정>은 다음 해 2월 9일에 체결되고, 뒤이어 프랑스는 나폴리, 포르투갈, 러시아, 터키와도 평화협정을 맺는다. 뤼네빌 평화협정의 골자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공화정의 형식을 모방해 점령지에 세운 —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공화국 Batavische Republik(1795-1806), 스위스의 헬베치아 공화국 Helvetische Republik(1798-1803), 그리고 제노바 만(灣)의 리구리아 공화국 Repubblica Ligure(1797-) 등 — 위성공화국을 오스트리아가 승인할 것과 <캄포 포르미오 협정>의 재확인이었다. 라인강 좌안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 가진 첫 평화회담이었던 캄포 포르미오 회담(1797)에서 바젤과 안더나흐를 연결하는 지역의 자국편입을 인정받은 이 후 열린 라슈타트 회담(1797-1799)과 뤼네빌 회담(1801)에서도 이 지역의 영토권 승인문제가 또 다시 회담의 주제로 오른 것을 보면 프랑스가 이 지역에 대한 주권 행사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주축이 되어 프랑스와 벌인 <제2차 동맹전쟁>은 뤼네빌 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종전이 되었으나, 동맹체의 또 하나의 중심국가인 영국과 프랑스간에는 1802년 3월 27일 <아미앵 Amiens 평화협정>이 따로 체결된다. 그러나 영국군이 점령한 지중해의 몰타 Malta 섬에서 철수를 거부하고, 나폴레옹도 이탈리아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위성국가를 건설하는 등 쌍방이 모두 아미앵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간의 <프랑스 혁명전쟁>의 연장전쟁은 유럽 대륙에서 진행된 그것과는 양상을 달리하였으니,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해외 민지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차 동맹전쟁>은 1805년에 일어나 그 해에 종전된다. 이 전쟁은 영국이 동맹체의 핵이 되어 프랑스의 패권주의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행된 전쟁이지만 오스트리아에게는 영토상의 변경을 가져다 준 전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유럽대륙의 힘의 균형을 부활시키기 위해 1805년 4월 11일 러시아와, 8월 9일에는 오스트리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한다. 한 편 스웨덴은 이미 1804

년 12월에 영국과, 1805년 1월에는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프로이센은 중립을 견지한 대가로, 1803년 군함국의 형식을 취해 프랑스가 자국에 합병한 하노버 선제후국을 프랑스로부터 1년간(1805-1806) 양여 받는다. 프로이센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먼 훗날의 <북독일 연방>(1866)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통일을 겨냥한 외교적 체스처였던 것을 오스트리아는 인지하지 못했다.

1805년 나폴레옹은 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등 남독일 선제후국들의 지원을 업고 오스트리아 군대를 공격하여 마크 Karl Freiherr von Mack남작이 지휘하는 오스트리아 육군을 10월 19일 울름 Ulm 전투에서 항복시키고, 여세를 몰아 11월 13일 빈을 점령해 버린다. 그리고 12월 2일 뵈덴의 아우스터리츠 Austerlitz에서 나폴레옹 1세의 군대는 오스트리아 황제 겸 독일제국의 황제이기도 한 프란츠 2세의¹⁴⁾ 군대와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1세의 군대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준다. 역사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상대로 프랑스가 벌인 이 전투를 가리켜 <삼왕전 Dreikaiserschlacht>이라고 기술한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1805년 12월 26일 프레스부르크 Preßburg (체코명, 브라티슬라바 Bratislava)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낸다. 오스트리아는 1797년 <캄포 포르미오 평화조약>으로 획득했던 베네치아와 이스트리아와 달마치아를 이탈리아에게 넘겨주고, 오스트리아 서북쪽에 가지고 있던 변방지역 영토를 바이에른과 바덴과 뷔르템베르크에 양도해야 했다. 그 밖에도 티롤 Tirol과 포어아를베르크 Vorarlberg와 주교구(主敎區)들인 브릭센 Brixen, 트리에스트, 아이히슈테트 Eichstädt, 파사우 Passau를 바이에른에 넘기고, 토스카나의 페어디난트 3세로부터 선제후국 잘츠부르크를 양도받아 오스트리아 영토에 편입시킨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슈바르츠발트 Schwarzwald 남쪽을 위시하여 현재의 바이에른과 바덴과 뷔르템베르크에 가지고 있던 영토를 모두 상실한다. 그 밖에도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에서

14) 신성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는 1804년 8월 11일 오스트리아 초대 세습황제에 등극하여 프란츠 1세로 불린다. 그 후 한 달도 채 아니 되어 12월 2일 제1 집정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교황 입회 하에 황제의 위에 오름으로써 나폴레옹 1세로 불린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왕위를 관리하는 권한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엘베 Elbe 강 서남쪽 지역의 프랑스 위성제후국 군(群)을 리드할 바이에른 선제후와 뷔르템베르크 선제후의 왕 승격을 프란츠 2세 황제로 하여금 허락하게 만들었다.¹⁵⁾

남(南)독일에서의 오스트리아의 영토 상실은 — 광의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 향후 유럽대륙의 판도 변화에 대한 예고이었다. 그것은 두 독일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엄연히 존재해 온 양국간의 원초적 갈등의 결과이었으며, 동시에 그 해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의미에서 볼 때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은¹⁶⁾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라인동맹 Rheinbund>을 결성케 한 원인을 제공해 주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가 겸직해 온 독일황제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¹⁷⁾ 그도 그럴 것이 <제3차 동맹전쟁>은 개전 초기부터 남독일을 사실상 대표하는 3선제후국(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들이 나폴레옹 1세를 지원한데다가, 종전 후 맺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들 3선제후국들이 오스트리아로부터 영토를 할양 받도록 나폴레옹이 문서상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간에 <1차 동맹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795년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단독 강화조약을 바젤 Basel에서 체결해 친(親)프랑스 노선으로 선회한 바, 이는 곧 <라인동맹>의 결성을 묵인하고 독일제국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라인동맹>이 반민족적 프랑스 위성국가집단이었다는 비

15) 1805년 12월 26일 조인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 제8조는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Tirol, Vorarlberg, Lindau등을 바이에른에, Ehingen, Munderkingen, Riedlingen, Mengen, Saulgau등의 도나우 도시들과 Hohenberg, Villingen, Bräunlingen 등을 뷔르템베르크에게, 그리고 바덴에게는 Breisgau, Ortenau, Konstanz 등을 할양하게 만들으로써, 프랑스는 <라인동맹> 가입국들의 영토확장을 도왔다.

16)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으로 오스트리아는 남독과 이탈리아에서의 기반을 상실하고 독일제국 해체의 전단계로 초래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제노바에 세운 위성공화국 이외에도 나폴레옹 1세는 바티칸은 Römische Republik으로(1798), 나폴리는 Partheopäische Republik(1799)으로 선포했다.

17) 1806년 7월 12일 라인동맹 규약에 초기 16개 가입국이 서명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6일 독일제국 황제 프란츠 2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해체를 선언해야 했다.

판이 남독일 지역을 독일제국 황제, 즉 오스트리아 황제의 영향권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장래의 <북독일연방>(1866)의 성으로 이어지는 통일작업의 불가피한 수순 밟기이었다는 평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그 5년 후 독일의 통일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프로이센은 남독이 프랑스의 영향권 안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라인강 좌안 지역을 일찌감치 차지한 후에도 프랑스가 끊임없이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으려고 애쓴 것은, 라인강이라는 <자연 국경선>을 프랑스의 동쪽 국경선으로 보장받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프로이센이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제3차 동맹>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중립적 태도 내지는 친 프랑스적 태도를 견지한 이유는 명약관화해진다.

그러나 프로이센에게 양여 한바 있는 하노버의 통치권을 나폴레옹이 영국에게 넘기고 라인강변의 안스바하와 바이에른의 바이로이트를 점령해 버리자 프로이센은 친 나폴레옹 외교노선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남독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프랑스에게 전달한다. 그것은 프랑스가 프로이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프로이센을 오스트리아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제국 소속 선제후국 하노버에 대한 통치권을 한시적으로 프로이센에게 양여한 지 1년이 될까 말까한 1806년 9월 6일의 일이었다. 프로이센의 최후통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는 일로 튀링엔 Thüringen으로 진격해 들어간다. 10월 10일 자알펠트 Saalfeld에서 처음으로 프랑스군과 접전한 후 10월 14일 예나 Jena전투와 아우어슈테트 Auerstedt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주력부대는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완패를 당한다. 이사이에 프로이센과 상호방위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선제후국 작센은 프랑스와 단독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동맹 탈퇴를 선언한다. 나폴레옹은 마침내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 침공에 성공하고, 영국을 평화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대륙봉쇄령 Kontinentalssperre>을 선포한다.

동프로이센으로 피신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러시아의

지원을 얻어 전쟁을 속행한다. 동프로이센은 지금은 러시아와 폴란드에 속하지만 1945년까지는 프로이센의 주로서 수도는 동프로이센의 문화 및 경제 중심지이며 칸트의 고향이기도 한 쾨니히스베르크 Königsberg였다. 1807년 2월 초 동프로이센까지 진격하여 프로이시쉬 아일라우 Preußisch Eylau(지금의 러시아 땅인 바그라티오노프스크 Bagrationowsk)에서 프로이센과 벌인 전투에서 이렇다할 전과가 없었던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지만 러시아와 프로이센은 4월 26일 상호 군사동맹 체결로 맞대응 한다. 6월 14일 프리트란트 Friedland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크게 패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는 군부내의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의 압력을 받아 나폴레옹이 제의한 평화협상에 응한다. 1807년 7월 7일 동프로이센의 틸지트 Tilsit(1945년 이후 러시아의 사비예츠크Sowetsk)에서 프랑스와 러시아간에 평화협정이, 7월 9일에는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평화협정이 각각 체결되어 전쟁이 종식되는데, 1806년부터 1807년까지의 이 전쟁을 <제4차 동맹전쟁>이라고 한다. 한 편으로는 프랑스가 라인동맹의 결성을 파리에서 완성시키면서, 또 한 편으로는 프로이센을 침공했던 전쟁이다. 부연하자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에 참여를 거부한 때문이었다.

<틸지트 평화협정>의 체결로 러시아는 추락 직전의 프로이센의 국운을 구해 주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자동적으로 대륙봉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프랑스와 영국간의 평화회담을 주선해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프로이센 역시 프랑스가 영국을 겨냥하여 선포한 대륙봉쇄에 참여를 강요받았으며, 엘베강 서쪽 땅을 잃음으로써 제2급 강대국으로 전락해야 했다. 나폴레옹 1세는 1807년 라인강과 엘베강 사이에 베스트팔렌 Westphalen 왕국(수도: 카셀)을 새로이 건설하여 자신의 동생 제롬 Jérôme Bonaparte으로 하여금 통치케 했다. 프로이센이 엘베강 서쪽에 가지고 있던 땅은 모두 베스트팔렌 왕국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베스트팔렌 왕국은 1813년까지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분할로 프로이센의 몫이 되었던 지역에는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은 또 하나의 위성국가인 바르샤바 공국이 설립되고, 단치히(폴란드의 그다니스크)는 자유시가 되었다. 프로이센의 영토

이었던 코트부스 Cottbus는 작센과 프랑스가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작센에게 양도되었다.

VII. 신성로마제국의 해체와 티롤 해방전쟁

1765년에서 1790년까지 독일제국의 황제였던 요제프 2세는 세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그때까지 토스카나의 공작이었던 그의 동생 레오폴트 2세(1747-1792)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나 2년 후인 1792년에 요절하고, 그의 아들 프란츠 2세(1768-1835)가 독일황제로 등극한다. 1800년 이후 프란츠 2세는 나폴레옹 1세가 신성로마제국을 와해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제국을 설립하려는 음모를 공공연히 꾀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신성로마제국은 — 즉 독일제국은 — 와해 직전에 와 있었다. 제국의 제후들이 제국의 적과 연합하여 <라인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에, 라인동맹 소속 국가들을 독일제국의 우산 밖으로 끌어내어 프랑스의 지배체제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서 양독(兩獨)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온 독일제국을 와해시키려는 것이 나폴레옹의 목표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츠 2세는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나폴레옹에 대적하기 위해 1804년 8월 11일 오스트리아를 황제국으로 선포하고 프란츠 1세 황제로서¹⁸⁾ 오스트리아의 첫 세습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같은 해 12월 2일 그때까지 제1 집정관이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교황 비오 7세를 입회시킨 가운데 스스로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고 자신을 나폴레옹 1세 황제라 칭한다. 프란츠 2세가 독일황제의 자격으로 1806년 신성로마제국의 소멸을 전격 선언한 것은 <라인동맹>의 결성과 더불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나폴레옹 1세의 계략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인 동맹>의 헌법은 프랑스의 맹방으로서의 의무조항을 가입국 제후들에게 강요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공략하기

18) 1804년부터 1806년까지 그는 이중황제이었다. 다시 말해 독일제국, 즉 신성로마제국 황제(프란츠 2세)와 오스트리아 황제(프란츠 1세)를 겸임했던 것이다.

위해 출병을 할 때 라인 동맹 소속 국가는 병력분담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었다. 1812년 6월 24일 현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메멜 Memel강을 건넌으로써 시작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동원된 60만 대군 중 프랑스의 자체병력은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라인 동맹국가들에서 징발된 병사들과 점령지에서 강제 동원된 청년들이었다. 1806년 나폴레옹과의 대결에서 프로이센이 완패한 이후 1808년까지 라인동맹에 가입한 국가는 남부독일의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뷔르츠부르크와 작센등의 중부독일과 북부독일의 거의 모든 군소 제후국들이었다. 라인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독일 국가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덴마크 왕이 공작을 겸했던 홀슈타인 Holstein과 스웨덴 왕이 공작을 겸했던 폼메른 Vorpommern 뿐이었다. 드레스덴을 점령한 나폴레옹 군대에 대한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 3국 연합군의 포위공격이 한창이던 1813년 10월 <라인동맹>은 드디어 해체되고 소속국가들은 3국 동맹에 합류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801년 <뤼네빌 평화협정>에 따라 라인강 좌안지역이 프랑스에 양도됨으로써 영지를 상실한 해당지역의 제후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독일제국의회는 선제후국 마인츠, 비멘, 작센, 브란덴부르크, 팔츠-바이에른, 독일 기사단, 뷔르템베르크, 헤센-카셀의 대표들로 구성된 독일제국의회 대표단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1802년 프랑스와 러시아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제2차 동맹전쟁)의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독일제국의 관할영토를 재편하기 위한 법률수정, 특히 교회법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영지를 잃게 된 세속제후들을 보상하기 위해 성직 제후들이 관할한 영토와 — 독일 기사단과 요한 기사단(몰타 기사단) 그리고 선제후국 마인츠 대주교구만 제외하고 — 기타 모든 교회재산의 국유화 조치를 의결하였으니, 1803년의 이 결의를 가리켜 <독일제국대표자회의결의 Reichsdeputationshauptschluß>라고 한다.¹⁹⁾ 교회재산의 국유화와 더불어 아욱스부르크,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뤼베크, 뉘른베르크를 제외한 모든 제국직할시는 독일제국황제 직할에서 해당지역 제후의 관할로 옮겨졌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주교구였던 브릭센과

19) 각주 11 참조.

트리엔트를 획득하고, 뷔르츠부르크 공국과의 교환조건으로 토스카나의 공작 페어디난트 3세(1769-1824)로부터 선제후국 잘츠부르크를 획득한다. 1803년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잘츠부르크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역사적인 해이었다.

프란츠 2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에 즉위한 1792년부터 <베스트팔렌 평화 회담>(1648) 이후 두 번째의 대규모 유럽 평화회담이었던 1814년의 <빈 회의> 개막 직전까지 지속된, 유럽 동맹국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동맹전쟁> 중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간의 전쟁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남서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에서 프랑스 그것으로 옮겨간 것은 프로이센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1805년 11월 영국, 러시아, 스웨덴과 동맹을 결성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및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체결한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와 바덴 등의 독일제국 소속 제후국들의²⁰⁾ 침공에 대항해서 싸울 충분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오판했던 듯하다. 울름 Ulm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포위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군대는 항복을 했다.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이자 합스부르크가의 본거지인 빈 Wien 마저 적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다. 나폴레옹은 1809년 5월 13일 오스트리아 황실이 하절기에 이용하는 쾨브룬 궁에 입주한다.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한 후 수도를 탈환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인의 노력은 처절했다. 같은 달 21일과 22일 현재 빈 시(市) 제22구에 속한 아스펜 Aspern과 에스링 Eßling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 때까지 무패의 나폴레옹 1세의 군대는 카알 Karl 대공이²¹⁾ 진두지휘한 오스트리아군에게 크게 패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의 승전은 단발에 그치고 만다. 계속해서 모라비아로 진격해 들어간 나폴레옹 1세는 자신의 황제 즉위 1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인

20) 프랑스는 1806년 7월 12일 독일 남서부 지역의 16개 독일제국 소속 제후국들과 <라인 동맹>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으로 <라인동맹>을 주도할 바이에른(1805년 8월 5일, <Bogenhausen 조약>)과 바덴(1805년 9월 5일, <Baden-Baden 조약>)과 뷔르템베르크(1805년 10월 5일, <Ludwigsburg 조약>)와는 상호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21) Karl 대공(1771-1847)은 레오폴트 2세의 2남이며, Johann 대공(1782-1859)은 동생이고, 큰형이 프란츠 1세 황제이었다. 요한 대공은 1848년 6월 24일 프랑크푸르트 혁명의회에 의해 독일제국 섭정자로 선출되어 1849년 12월 20일까지 그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1805년 12월 2일 모라비아의 소도시 아우스터리츠에서 벌어진 소위 <삼제전(三帝戰)>에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의 연합군에 대승을 거둔다. 프란츠 2세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해 12월 26일 프레스부르크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프랑스 측의 평화안에 서명한다. 이듬해인 1806년 7월 12일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를 앞세워 <라인동맹>을 결성시킨 나폴레옹은 프란츠 2세에게 독일황제, 즉 신성로마제국황제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프란츠 2세는 황제직을 물러나면서 신성로마제국의 법적인 소멸을 선언해 버린다. 이로써 1438년 이후 합스부르크가에서 황제를 배출한 신성로마제국은 역사의 장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합스부르크가에서 나온 첫 황제는 아헨에서 대관식을 가졌던 루돌프 1세 이었다. 루돌프 1세는 동시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시조이기도 하다.

<프레스부르크 평화회담> 이후 카알 대공은 오스트리아 육군의 철저한 재편성에 착수하지만, 다음번의 대 나폴레옹 전쟁은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시작된다. 티롤은 1363년 이후 오스트리아 영토이었다. 풍광이 빼어난 산악지역이며 유럽의 동(동유럽), 서(프랑스), 남(이탈리아), 북(독일)을 연결해 주는 교점(交點)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보배 중의 보배이며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여 온 지역이다. 그런 티롤인데,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에 포함된 조건 중에서 오스트리아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조건이 끼어 있었으니, 그것은 티롤을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분리시켜 프랑스의 위성왕국 바이에른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티롤에서 광범한 주민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소요사태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속속 빈의 황실에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는 티롤 독립운동의 배후 추진 세력은 황제 프란츠 1세의 동생 요한 Johann 대공이었다. 1808년 말 남(南) 티롤 출신의 식당 경영인 안드레아스 호퍼 Andreas Hofer(1767-1810)라는 사람이 빈으로 와서 대규모 봉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티롤 독립군들은 1809년 3월 12일에 전투준비를 갖추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원정군대는 4월이 되어서야 전투준비를 완료한다. 중앙정부의 원정군이 약속된 일자에 도착

하지 않았지만 티롤의 봉기는 계획대로 일어난다. 바이에른 점령군부대와 점령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으로 달려 온 프랑스군 부대는 티롤 독립군에 의해 격퇴 당한다. 마침내 이들은 1809년 4월 12일 인스브루크 Innsbruck 근교의 이젤Isel 산기슭에서 티롤 독립군에게 항복한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독으로 출정한 오스트리아 황제군은 후퇴를 하기 시작하고 티롤은 프랑스와 바이에른 연합군의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만다. 나폴레옹은 직접 주력부대를 이끌고 빈으로 침공해 들어간다.

42세의 시민계급 출신의 안드레아스 호퍼가 선봉장이었던 티롤 봉기는 독일 해방전쟁의 초기단계로 분류됨으로써 독일어권의 대(對)프랑스 해방 전쟁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유독 오스트리아 역사만이 1809년의 대(對) 프랑스 전쟁을 <제5차 동맹전쟁>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09년 4월 12일 전투에서 항복 한 후 절치부심 하면서 기회를 노리던 프랑스·바이에른 연합군은 5월 29일 티롤 독립군 토벌에 나선다. 이젤 Isel 산기슭에서 벌인 두 번째의 혈전에서도 이들은 패하여 티롤을 비워주기에 이른다. 두 번이나 티롤 독립군에게 수모를 당한 나폴레옹 1세는 7월 중순 르페브르 François J. Lefebvre(1755-1820) 총사령관에게 5만의 병사를 지휘케 하여 티롤을 재침공토록 하여 무자비한 토벌작전을 벌인다. 슈바츠 Schwaz를 포함한 여러 지역들이 프랑스군의 방화로 초토화된단다. 티롤에 남아 있었던 오스트리아 황제군과 관리들은 이미 티롤을 떠나고 없었다. 인스브루크에 사령부를 설치한 러페브르 장군은 티롤의 전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프스의 계곡으로 진격한 부대는 티롤 독립군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친다. 인스브루크 주위의 산악지역도 티롤인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8월 13일 티롤 독립군은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진 세 번째 전투에서도 지형에 익숙치 못한 프랑스군에 승리를 거둔다. 이 전투는 전 유럽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안드레아스 호퍼는 이제 티롤 독립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인스부르크의 호프부르크궁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시민계급의 직업에 종사하던 그로서는 군사행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오직 황제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지금까지 민중봉기를 지휘하여 왔

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로부터 티롤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의 여하한 평화협상 제의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는 황제의 명령을 그는 철저히 지켰다. 빈에서 평화협상이 시작되었고 티롤은 다시 오스트리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그래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1809년 10월 14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쾨브룬 평화조약>에 서명한다.

1809년 7월에 시작된 오스트리아·프랑스 비밀회담은 8월 17일 공식 개막되어 10월 14일 나폴레옹 군대의 빈 주둔사령부인 쾨브룬 Schloß Schönbrunn에서 정식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프랑스 대표 샹파니 Nompère de Champagny와 오스트리아 대표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이 서명한 전문 18조로 구성된 문서에서 오스트리아 황실은 2,000평방 마일에 해당하는 영토와 350만 주민을 포기해야 했다. 잘츠부르크와 베르히테스가덴 Berchtesgaden과 인 Inn강(江) 지역과 하우스루크 Hausruck 삼림지역의 절반을 바이에른에 넘겨야 했다. 이탈리아에게는 괴르츠 Görz와 몬팔코네 Monfalcone와 트리에스트와 크라인 Krain과 빌라흐 Villach 등을 내주어야 했다. 크라인, 이스트리아, 피우메, 트리에스트, 케른텐과 티롤의 일부(서 케른텐과 동 티롤)는 달마치아와 합병하여 파리의 프랑스 중앙정부가 직접통치하는 일리리아 왕국으로 독립시킨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해양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굴욕적 영토침탈을 허용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나폴레옹 1세가 패망한 1814년 오스트리아에 다시 환원된다. 티롤은 세 지역으로 쪼개어 분할된다. 북 티롤은 바이에른에, 남 티롤은 이탈리아에 각각 할양된다. 크라카우를 포함하는 서갈리시아는 1807년에 이미 나폴레옹 1세가 프로이센의 점령지역을 빼앗아 건설한 위성국가인 바르샤우 대공국에 양도케 만든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는 <라인동맹> 소속 국가들 내에 있는 독일기사단의 폐지를 승인해야 했다. 나폴레옹은 봉기에 참여한 티롤인들과 포어아를베르크인들에게 일반사면을 약속하고, 오스트리아에게 영토의 종주권을 보장했다.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대(對)영국 대륙봉쇄령 Kontinentalssperre에 동참해야 했다. 나폴레옹은 또 1개 비밀 조항을 만들어 오스트리아에게 8,500만 프랑의 전쟁배상금을 부과하고 병력을 15만으로 제한했다. 1813년 8월 12일의 대(對)프랑스 선전포

고와 더불어 오스트리아를 제2급 강국으로 전락시켰었던 <쾰른 평화조약>은 무효가 되었지만, 1809년에서 1813년까지 4년여는 오스트리아에게는 굴욕적인 시기이었다.

평화조약의 내용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어 나간다. 과격한 열성파들은 또 한 번의 봉기를 준비한다. 파괴되고 약탈당한 티롤을 프랑스 연합군의 침공으로부터 수호하고자 모인 이 마지막 지원병들에게서 전과 같은 일사불란한 단결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1809년 11월 1일 네 번째 이젤 산 전투에서 티롤 독립군은 무릎을 꿇는다. 호퍼는 1810년 1월 27일 밀고자의 고발에 의해 체포된다. 만투아 Mantua로 이송된 그는 1810년 2월 20일 나폴레옹의 지시로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채 총살된다. 해방전쟁은 1812년 말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후 본격적으로 벌어지지만, 그에 앞서 오스트리아의 티롤에서 약 1년간 지속된 안드레아스 호퍼에 의한 티롤 해방운동은 독일어권의 대 나폴레옹 항쟁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다. 독일이 자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때 1813년의 리프치히 전투를 상기시키듯이, 오스트리아는 티롤인들의 애국적 저항운동을 그 예로 들 때가 많다. 그러나 안드레스 호퍼는 혁명가는 아니었다. 그의 행동을 지배한 것은 자유와 진보의 이념이 아니라 애향심과 카톨릭 정신과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VIII. <빈 회의>와 <독일연방>의 결성

오스트리아의 국력이 최저점에 도달한 이 시기의 암울한 국제 정치적 배경에서도 한 위대한 정치가가 출현하였으니, 클레멘스 벤첼 메테르니히(1773-1859)백작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1809년까지 3년간 파리주재 오스트리아 대사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동급의 프랑스 외교관인 — 나폴레옹 1세 하에서 1797년부터 1807년까지 10년간 외상을 지낸 — 탈랑 Charles M. Talleyrand(1754-1838)과 교분을 맺는다. <빈 회의 Wiener Kongress>가

끝난 후에도 패전국 프랑스가 유럽대륙 내에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탈랑의 유능한 외교의 덕도 있었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메테르니히의 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테르니히는 나폴레옹 1세의 속내와 프랑스의 정치적 노림수를 읽을 줄 알았던 정치가였다. 1809년 말 외상 겸 수상에 임명되자마자 그는 대 프랑스 유화정책을 펴서 긴장완화를 기하는 데 주력한다. 때마침 나폴레옹은 얼마 전에 부인 조세핀과 이혼을 한 터였었다. 메테르니히는 황제 프란츠 1세의 동의를 얻어내어 공주 마리 루이제 Marie Louise를 1810년 나폴레옹 1세와 정략결혼을 시킴으로써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한다. 이 결혼에서 나폴레옹의 유일한 아들이 태어난다. 프랑소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정식 이름이고 세습권을 고려하면 나폴레옹 2세이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프란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훗날 뉘른베르크의 라이히슈타트 Reichstadt 공국의 공작의 칭호를 얻는다. 프란츠는 불행한 아이였다. 1814년과 1815년 두 번에 걸친 아버지의 실각 이후 어머니의 품을 떠나 외할아버지가 황제로 있는 빈의 쇤브룬 궁전에서 교육받는다. 1817년에는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마치 어린 포로처럼 생활하다가 1832년 21세의 나이에 사망한다.

마리 루이제와 나폴레옹 1세의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 국내용 유화정책이었다면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에 오스트리아가 병력을 파견한 것은, 국제정치의 얽힘과 설킴의 원칙을 예측한 메테르니히의 외교적 혜안의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메테르니히는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부대를 나폴레옹 1세의 60만 러시아 원정군에 합류시키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러시아와는 별도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동맹결성을 시도한다. 이 부대는 나폴레옹을 따라 러시아까지 원정하여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자국 군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고, 완전히 거덜 난 국가재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그 당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시기로 기록될 만큼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였다. 1811년의 지폐의 가치는 은이나 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치의 20%에 불과했다. 당시의 지폐는 전쟁의 산물이었다. 오스트

리아에서 지폐가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762년이었다.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후 영국과 프로이센은 재빨리 러시아와 동맹을 결성했다.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주도권 싸움에 오스트리아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메테르니히는 한편으로는 나폴레옹을 정전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평화회담의 내용을 나폴레옹이 받아 드리지 아니할 경우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러시아와 연합하여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약을 이 두 열강과 동시에 체결한다.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메테르니히의 제안에 찬성한다. 드레스덴 예비평화회담에서 나폴레옹은 메테르니히의 제안에 대해 몇 개의 조항을 인정하지만 1813년 8월 10일 <프라하 평화회담>에서는 예비회담에서의 합의를 번복한다. 그리하여 1813년 8월 12일 선전포고를 한 후 8월 17일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동맹군의 총사령관은 슈바르첸베르크 Felix Schwarzenberg 후작(1771-1820)이고, 그의 참모장은 라데츠키 Johann J. W. Radetzky(1776-1858) 백작이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오스트리아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고, 특히 슈바르첸베르크는 프랑스와 러시아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기도 하며,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도와 파병된 오스트리아군 부대의 장을 맡기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라데츠키는 1813년 해방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로 유명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장군으로서 요한 슈트라우스가 1848년에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의 모티브를 제공한 장본인이다. 해방전쟁의 초기에는 프랑스군이 우세했지만 181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계속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직접 지휘한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 연합군에 의해 섬멸된다. 연합군은 패퇴하는 나폴레옹을 추격하여 프랑스로 진격한다. 파리가 점령되고 나폴레옹은 1814년 4월 11일 퇴위하여 엘바 섬으로 추방된다. 나폴레옹의 패망을 이끌어 낸 메테르니히의 외교적 수완도 수완이지만, 파리 평화회담에서 연합군 측이 프랑스에 보여준 거시적 안목과 관용도 메테르니히가 개입한 결과였다. 연합

군 측 대표들은 패전국 프랑스로부터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여하한 종류의 전쟁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평화조약체결 2개월 이내에 유럽의 현안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한다는 유보조건을 파리 평화조약의 문건에 포함시켰다.

1814년 말 전승국인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영국 등 유럽 4강과 패전국 프랑스의 대표가 각각 대규모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빈에 도착한다. 이들은 1815년 6월까지 빈에 머물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 구체제로의 복고주의와 왕조의 정통주의 그리고 열강들간의 국가적 연대라는 3대 정치적 원칙의 기저 위에서 유럽의 정치상황을 <제1차 동맹전쟁>이 발발한 1792년 이전 시기로 회복시킨다는 복고정책, 앙시앙 레짐의 옹호정책, 혁명적 이념 혹은 혁명적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각국 군주들의 공동이해를 도모하는 정책 등을 논의한다.

<빈 회의>는 유럽의 4강(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을 이사국으로 임명하고 의장국으로 오스트리아를, 의장으로는 메테르니히 수상을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의장으로 선출된 메테르니히 수상이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 취한 첫 조치는 탈랑 수상에게 4강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패전국 프랑스를 이사국의 반열에 포함시킨 것이다. 오스트리아 국민의 눈에 비친 <빈 회의>는 패전국인 프랑스가 승전국가들과 나란히 유럽의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동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을 것이다. <7년 전쟁>과 <바이에른 계승전쟁>에 출정한 바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주재 오스트리아 공사를 역임한, 당시 카타리나 2세의 두터운 신임을 누린 바 있는 왕년의 오스트리아 군 총사령관이자 외교관이었으며 작가로도 활약했던 린느 Charles Joseph Ligne 후작의²²⁾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성과는 없다 Le congrès danse beaucoup, mais il ne marche pas”²³⁾는 약간은 비아냥거림이 내포된 예의 유

22) 1735-1814: 저술가로도 활동한 린느는 프리드리히 2세, 카타리나 2세, 볼테르, 루소, 괴테, 비일란트 등과 교환한 서신을 후세에 남겼다. 린느는 <빈 회의>가 개최된 직후인 1814년 12월 13일 빈에서 사망했다.

23) Zit. nach Vocolka, Geschichte Österreichs, S. 175.

명한 경구는 <빈 회의>의 실제 상황에 완전히 부합한 표현은 아니었다. 왜냐 하면 6개월 이상 계속된 회담기간 내내 수없이 개최된 파티와 무도회 덕분에 회담은 막후에서 큰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외교는 통상 공식적인 협상의 테이블에서보다는 막후에서 내밀하게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결실을 가져올 때가 많기 때문에 외교관의 개성과 역량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프랑스가 패전국이면서도 5강의 대열에 서서 자국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탈랑의 외교적인 능력에다가 메테르니히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상승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이지만, 메테르니히가 패전국 프랑스에게 회의 벽두부터 4강 승전국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것은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국익을 위한 조치이었다. <빈 회의>에 참석한 유럽 각국의 외교사절 중에서 최 고령자여서 외교단장이었던 린스 후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가 넘쳐흐르는 사람이어서 임종의 자리에서도 오스트리아 총사령관의 임종을 지켜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한 그에게 빈 회의는 감사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근검절약을 숭수수범했던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1세에게는 <빈 회의>에 참석한 유럽 각국의 사절을 위해 지출되는 일일 비용 5만 굴덴은 실로 막대한 액수였으며, 더욱더 고약한 노릇은 이들을 위해 쇤브른 궁을 비워 주고 황제와 황실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점이었다. 그 뿐 아니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폴레옹 1세에게 출가시킨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제가 이제 어린 아들 라이히슈타트 대공을 데리고 친정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만 돌이켜 보아도 황제에게는 불쾌하고 굴욕적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황제에게는 바로 친 고모인 마리 앙트와네트와 그녀의 남편이자 황제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루이 16세의 처형(處刑), 그리고 나서 딸 루이제와 나폴레옹 1세의 반 강제결혼,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곧 사위가 될 나폴레옹 1세가 대군을 앞세워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인 빈을 침공해 들어와 쇤브른 왕궁을 점령했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 그리고 이 모든 치욕적인 체험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체험은, 바로 이 나폴레옹이 장래의 장인이 될 독일황제 프란츠 2세(오스트리

아 황제로서는 프란츠 1세)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벗으라고 강요했던 일이다. 그러니 나폴레옹 군대를 맞아 판판이 패한 술한 전투들과 그것들이 몰고 온 심각한 정치적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네 번이나 결혼을 했으며 그 중 세 번은 상처(喪妻)를 당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평소에 동경하고 있는 검소한 생활은커녕 유럽 각국에서 온 국가원수들을 접대하는 호스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쏟아 부은 전쟁경비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한데도 회의경비로 매일 5만 굴덴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황제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회의 참석자 어느 누구도 여흥을 위한 준비부족을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 러시아 황제는 40일 밤을 연달아 무도회에서 춤을 추었고, 덴마크 왕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낮에는 프라터에서 벌어지는 마상(馬上) 창 시합 과 열병식이 있었고, 빈 숲에서는 사냥대회가 개최되었다. 제일 먼저 황제들이 쏘고 나면, 왕들의 차례가 된다. 황제들과 왕들의 일제사격에서 살아남은 짐승들은 육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왜냐 하면 사냥대회의 프로토콜에 의하면 그 다음의 사격은 군소 제후국 영주들의 차례였으니까. 밤에는 합스부르크 황실을 받들어 모시는 오스트리아의 귀족가문들이 — 에스터하치, 팔퓌 Pfaffy, 아우어스페르크 Auersperg, 슈바르첸베르크, 롭코비츠 Lobkowitz, 킨스키 Kinsky,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가(家) 등이 — 그들의 저택을 개방해야 했다. 라주몹스키 Rasumowsky 궁에서는 베토벤이 직접 작곡한 곡이나 베토벤이 직접 참가한 실내 음악 연주회가 열렸다. 1815년 1월 25일에는 황제의 집무실이 들어 있는 호프부르크의 연회장에서 개최된 음악회에서 베토벤이 자신의 곡들을 지휘했다. 이 곳은 바로 1년 전 그의 8번 교향곡이 처음으로 연주되었던 장소이다.

시중의 소문과는²⁴⁾ 달리 무도회와 사냥대회와 음악회와 야회(夜會) 석상에

24) 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여러 가지 종류의 유언비어들이 인구에 회자했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풍자시귀가 그 예이다.

러시아의 황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하고/프로이센의 왕은 모든 사람들을 위

서 자유로이 벌였던 토론과 사적인 대화들이 결실을 맺었다. 20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는 — 그 중에는 유럽의 5강을 비롯하여 수많은 왕국과 군소 제후국들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흥미롭게도 레바논의 왕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 막후에서 이미 의견일치에 도달한 합의사항을 조약으로 서명하는 일 외에는 이렇다할 토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회담이 고착 상태에 빠져 진척을 보이지 못한 문제가 두 가지 있었다. 그것은 거의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작센과 폴란드의 영토 문제였다. 러시아는 제2차(1793) 및 제3차(1795) 폴란드 분할 이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되어 버린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폴란드의 반환을 요구했고, 프로이센은 1813년까지 나폴레옹이 점령하고 있던 작센을 합병하려고 했다. 작센을 유럽지도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는 것은 프리드리히 2세 이후 프로이센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시켜, 프로이센의 침략정책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격이었다. 프로이센의 영토확장 야욕을 프로이센의 요구대로 들어 줄 수 없었던 메테르니히의 프로이센 견제 정책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영국 외상 카슬레이 Robert S. Castlereagh(1769-1822)와 탈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러시아의 폴란드 땅 요구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용인할 수가 없었다. 러시아로 하여금 나폴레옹이 세운 프랑스의 위성국 바르샤우 대공국을 완전히 합병하도록 허용한다면 인접한 오스트리아령 갈리시아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내맡기게 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메테르니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크라카우는 자유시로 남기고 폴란드의 Posen과 Thorn을 프로이센에게 돌려줌으로써 러시아의 요구를 견제한다. 프로이센에게는 베스트팔렌 Westfalen과 스웨덴령 폼메른 Schwed-Pommern을 할양하는 대신 작센의 북쪽 절반만을 허용한다. 러시아는 나폴레옹이 군합국(君合國)의 형식으로 세운 바르샤우 왕국을 획득한다. 자체 헌법을 지니

해 생각을 하고/덴마크의 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를 하고/바이에른의 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술을 마시고/뷔르템베르크의 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하는데/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산을 한다. Siehe Richard Rickett: Österreich. Sein Weg durch die Geschichte. Wien: Prachner 1969, S. 98.

는 이 러시아령 폴란드 왕국을 가리켜 <빈 회의>의 산물이라 하여 <콩그레스 폴란드>라 부르며, <콩그레스 폴란드>는 1815년부터 1831년까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후일 비스마르크 수상은 메테르니히의 외교력을 평가하면서 마치 재단사가 현 바지를 자르듯이 땅덩이를 잘라 놓았다고 말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관련지어 <빈 회의>의 결과를 평가한다면,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과 체결한 <쾰른 조약>으로 잃었던 영토를 모두 회수하게 된다. 서남쪽의 포어아를베르크, 티롤, 잘츠부르크, 인강을 중심으로 한 알프스지역을 다시 제국의 영토에 편입시킨다. 동남쪽의 케른텐과 크라인과 이스트리아도 오스트리아에게 환원된다. 포어아를베르크와 티롤과 잘츠부르크와 케른텐은 이 때부터 현재의 오스트리아의 영토로 고착된다. 합스부르크가는 토스카나 대공국과 모데나 공국도 되찾고 밀라노가 수도인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 왕국도 환수 받는다. 그 대신 오스트리아는 브라이스가우와 슈바벤 일대를 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에 넘겨주고,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포기한다.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즉 벨기에는 영국이 주도하여 신설된 네덜란드 연합왕국에 편입된다. 그리고 타르노폴 Tarnopol을 포함한 갈리시아도 다시 오스트리아의 통치령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영토재편으로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서의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한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제국의 인구는 450만 명이 증가하게 된다. <독일문제>는 그러나 1806년에 해체된 신성로마제국을 원상회복 시키는 대신에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독일연방 Deutscher Bund>을 결성하는 쪽으로 해결을 보았다. 1803년 2월 25일의 <독일제국대표자회의결의>와 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다수의 군소 제후국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은 동등한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는 회원국가를 39개국 보유한다. 독일연방의 창설을 정치적으로 고찰할 때 오스트리아의 무게가 동쪽으로는 도나우강 유역으로, 남쪽으로는 북 이탈리아로까지 현저히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 모든 협정들이 조인된 후, <빈 회의>는 러시아를 제외한 4강간의 동맹 즉, 오스트리아·영국·프로이센·프랑스 동맹을 결성하는 계기를 만나게 된

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메테르니히가 회의에 보고했을 때의 일이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이 보고가 있는 후 일괄 타결되고 나폴레옹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이 <빈 회의> 석상에서 긴급히 결성된 것이다. 앙시앙 레짐으로의 환원을 통한 정통성 회복을 주창한 프랑스 외무장관 탈랑은 루이 18세의 이름으로 동맹국 편에 선다. 나폴레옹은 과격한 민주주의적 개혁을 약속하면서 주력부대를 이끌고 파리에 입성하자 루이 18세는 피신한다. 나폴레옹의 손아래 매부로서 나폴레옹 1세 하의 프랑스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나폴리의 왕을 역임한 바 있는 조아생 뮈라 Joachim Murat(1767-1815)가 이탈리아의 왕위를 노리고 나폴레옹군에 가담하지만 1815년 5월 톨렌티노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의 나이페르크 Neipperg 장군에²⁵⁾ 의해 제압당하고 뮈라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형된다. 나폴레옹은 12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벨기에로 진격하여 프로이센의 블뤼허 Blücher von Wahlstatt(1742-1819)장군과 영국의 웰링턴 Arthur Wellesley Wellington (1769-1852) 장군이 지휘한 연합군 부대와 회전하지만 워털루 마을에서 섬멸당한다. 성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한 나폴레옹은 1821년에 사망한다. 연합군의 제2차 파리입성이 이루어지고 1815년 11월에 제2차 파리 평화회담이 열린다. 나폴레옹의 반란은 <100일 천하>로 끝났지만 프랑스는 대가를 치른다. 국경도시 자르브뤼켄 일대를 프로이센에 양도하고, 란다우는 바이에른에, 사보앵은 자르디니아에 넘겨주어야 했다. 여기에다가 현금으로 7억 프랑을 전쟁배상금으로 프랑스는 연합국 측에게 지불했다.

IX. 맺음말을 대신하여

<빈 회의> 종료 후 1848년 3월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33년 동안 오스트리아는 메테르니히의 복고적 탄압정책 하에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전대미문의

25) 나이페르크 Adam Adalberg Neipperg(1775-1829) 장군은 1821년 나폴레옹 1세와 정략 결혼했던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제와 결혼한다.

평화시기를 향유한다. 3차에 걸친 <슐레지엔 전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관계 역시 1792년에 시작된 4차에 걸친 대 프랑스 동맹전쟁과 <빈 회의>를 거치면서 표면상의 평화상태를 유지했다. <독일연방> 의장국의 역할을 33년간 오스트리아가 장악함으로써 일견 독일의 해게모니를 오스트리아 측이 장악한 듯 보였지만 실리는 프로이센이 챙기고 있었다. <라인동맹>의 결성으로 인해 오스트리아는 전통적 우방이었던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와 바덴을 위시한 제국의 남서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동시에 엘베강 서쪽 지역에 대한 프로이센의 주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작센을 프로이센에게 양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랑스의 위성왕국이던 베스트팔렌을 프로이센에게 넘김으로써 프로이센은 동쪽 날개에다가 서쪽 날개를 달게 된 셈이었다. 프로이센의 엘베강 서안 지역으로의 영토확장의 숙원이 드디어 달성된 것이었다. 이제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와 바덴은 프로이센이라는 독수리의 양 날개 밑에 고개 숙인 비둘기의 모습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키는 작업을 소리 없이 진행시키고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직에 매달려 슐레지엔을 잃었듯이 오스트리아는 <독일연방>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프로이센에 의한 <소독일> 통일을 허용한 것이다.

■ 참고문헌

- Aubin, Hermann, Ludwig Petry und Herbert Schlenger: Geschichte Schlesiens. 2 Bde. Stuttgart 1988.
- Bamberger, Richard und Maria, Ernst Bruckmüller und Karl Gutkas (Hg.): Österreich Lexikon. 2 Bde. Wien 1995.
- Gebhardt, Bruno und Herbert Grundmann: Handbuch der deutschen Geschichte. 4 Bde. Stuttgart 1955-1960; auch dtv-Taschenbuch, 17 Bde. München 1973-1975.
- Görlich, Ernst Joseph: Grundzüge der Geschichte der Habsburgermonarchie

und Österreichs. Darmstadt 1970.

Gotthard, Axel: Das Alte Reich. 1495 - 1806. Darmstadt 2003.

Kinder, Hermann und Werner Hilgemann: dtv-Atlas Weltgeschichte. 2 Bde.
32. Aufl. München 1998.

Rickett, Richard: Österreich. Sein Weg durch die Geschichte. Wien 1969.

Taddey, Gerhard (Hg.): Lexikon der deutschen Geschichte bis 1945.
Stuttgart 1998.

Vocelka, Karl: Geschichte Österreichs. Kultur - Gesellschaft - Politik.
München 2002.